



EconTalk과 Words & Numbers를 통해 배웠듯이 구글은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, 언젠가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많은 기업들(A&P, Sears, Kmart, IBM)처럼 쇠퇴하거나 사라질지도 모른다. 즉, 구글은 우리의 생각보다 큰 'power'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.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.

번역: 임민정

출처: <https://www.independent.org/news/article.asp?id=14988>